

차기에 안 낸다

5차 제시, 접근할 수준 아직



11차 집단교섭

2022년 집단교섭 11차 교섭이 8월 18일(목) 말레 동현화성에서 열렸다. 사용자측은 9개 사업장 14명, 노동조합은 10개 사 44명이 참가했다. 계양, 한국와이퍼 사측은 참여하지 않았다.

말레동현화성 사용자는 “지난 주 워크숍에서 깊은 논의했다. 11개사 입장 정리 어렵지만, 오늘 노사가 뜻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한다”고 인사했다.

이규선 지부장은 “휴가 직후 교섭은 한국와이퍼의 행태로 진행 못했다. 교섭 불참 좌시하지 않겠다. 중앙교섭은 의견접근, 사업장 교섭도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데 집단교섭도 속도내자”고 했다.

한국와이퍼 최윤미 분회장도 “사용자가 단체협약 위반, 고용합의 위반, 임단협 집단교섭 거부하고 노조폐성 청산과 조기퇴직 추진. 외투자본 전형적인 행태 반드시 해결할 것, 사용자협의회에도 다시 오게 만들겠다”며 한국와이퍼 현황을 알리고 투쟁의 의미를 밝혔다.

지부장은 “한두 사업장의 도발적인 행태로 교섭 전체가 파행으로 갈 수 있다. 사용자협의회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5차 제시, 아직도

사용자는 5차 제시안을 제출하고 설명했다. 휴가 후 처음 열리는 교섭이지만 각 사업장 별 임금은 큰 진전이 없었고, 추가 전임 관련해선 기존에 각 사별 정액 지급 방식을 유지하는 안으로 현실적 필요와는 격차가 큰 입장을 유지했다.

확대간부 교육시간은 기존 지부 확대간부수련회 8시간에 추가 8시간을 제시했지만, 애당초 요구는

금속노조 간부교육을 위한 2박 3일로, 제시안을 요구에 맞게 명확하게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작업복 세탁 관련 주 1회 등 횟수를 정하는 건 힘들지만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 공감을 이뤘다.

안 없는 축소교섭?

대충 빨리 × 접근 가능 안 내라

사용자는 “정회 후 의견을 정리해 축소교섭까지 염두에 두고 교섭을 이어가자”고 했다.

조합은 “의견접근 수준의 안이 아닌데 축소교섭은 회의적”이라며 의지를 물었고, 사측은 “자세한 현안과 취지를 알아야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요청을 받아 축소교섭을 열어 의견을 나눴다. 조합에서는 지부 사무국장, 간사(노안부장), 대원안산과 대한솔루션 지회장이, 사측은 현대케피코, 동양피스톤, 말레동현, 우창에서 참가했다. 추가 안은 없었고, 오히려 요구안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도가 여전히 낮고 혼선이 있음을 확인했다. 추가 안 없이 축소교섭을 제안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차기에 의견접근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교섭을 마무리하며 “소통이 부족인지 투쟁이 부족인지 의문, 한국와이퍼로 인해 집단교섭 파행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음 교섭에 임금포함 접근 가능한 안을 내주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투쟁을 배치할 것”임을 알렸다.

교섭 후 말레동현 화성 현장순회를 진행했다. 다음 교섭은 8.25(목) 14시 SJM에서 열린다.

